

카타르의 OPEC 탈퇴, 일단 가스 증산할 듯

- ▶ 충격적인 카타르의 OPEC 탈퇴. 원인은 지난 해 사우디와 단교 사태로 추정되며, 가스 생산량 40%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차후 시장 M/S 확대 주력할 듯. 추가로 사우디의 OPEC에 대한 대응, 美-中 간 역학관계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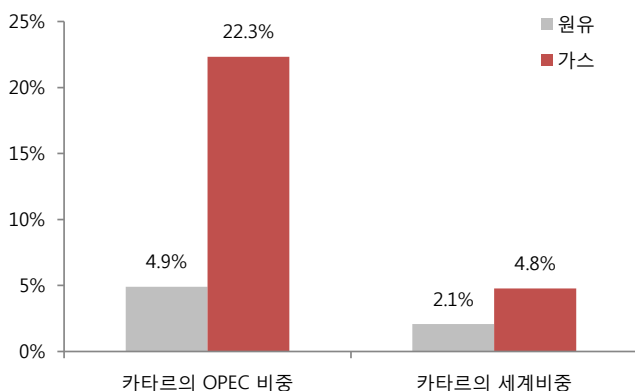
중동 주요 산유국, 카타르의 충격적인 OPEC 탈퇴

카타르의 '마이웨이'..."내년 1월 1일부로 OPEC 탈퇴"

(전략)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카타르의 국제적 역할을 증진하기 위한 장기 전략을 검토한 결과 OPEC을 탈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타르는 천연가스 생산이 집중할 계획으로 탈퇴 뒤 OPEC의 합의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략)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 카타르페트로리엄(QP)은 9월 세계 최대 해상 가스전인 '노스 돔'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뽑아내는 생산라인을 1개 증설한다고 발표했다. 이 생산라인이 가동되면 카타르의 LNG 생산량은 연 7천700만t에서 1억1천만t으로 약 42% 늘어난다고 이 회사는 예상했다. (하략)

자료 : 연합인포맥스, SK증권

17년 카타르는 OPEC 원유생산의 4.9% / 가스 22.3% 차지



자료 : BP, SK증권

- 한국시각으로 3일 오후에 놀라운 소식 하나가 나왔습니다. OPEC 회원국 중 꽤 입지를 지닌 카타르가 전격탈퇴를 발표했네요
-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공식발표를 했고, 당장에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그 이후로는 OPEC의 어떤 합의도 따르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카타르는 원유보다는 가스에서 미치는 영향이 큼니다. OPEC 생산에서 22.3%를 차지하죠. 특히 가스의 한 부류인 LNG 수출에 있어서는 전 세계의 1/3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 그리고 지난 9월 신규유전에서 생산으로 생산량은 현대대비 40% 이상 늘어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0.8억톤 → 1.1억톤)
- 여러모로 그들의 차후 행보는 주목할 여지가 많죠

- 일단 이런 선택을 한 큰 원인은 작년으로 돌아가 찾아야 합니다. 카타르는 수니파-시아파의 중간 정도 입장입니다. 그런데 수니파의 수장 사우디는 급작스럽게 카타르를 시아파로 명명하며 대대적인 제재를 명했죠. 물론 여기에는 단짝 미국의 동조가 컸습니다
- 그 이후 실제 카타르 돈줄인 LNG 수출이 줄어들었고, 이 물량을 미국이 대체하면서 '미국 win, 카타르 lose'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 카타르의 사우디-미국에 대한 불만은 당연히 극에 달한 상황, 여기서 OPEC 탈퇴와 독자행동은 의미하는 바가 크죠. 이제 그들도 증산, 가격인하 같은 행위를 택해서 M/S를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마침 얼마 전 사우디도 OPEC 존속여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단 소식이 있었는데요. 여러모로 12월 OPEC 회의가 궁금해 집니다
- 후속으로 카타르를 묶어야만 수출을 하는 美, 이란에 이어 또 다른 잠정적 동료가 생긴 中의 행보도 흥미롭게 지켜볼 요소입니다

•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 이상 → 매수 / -15% ~ 15% → 중립 / -15% 미만 → 매도

